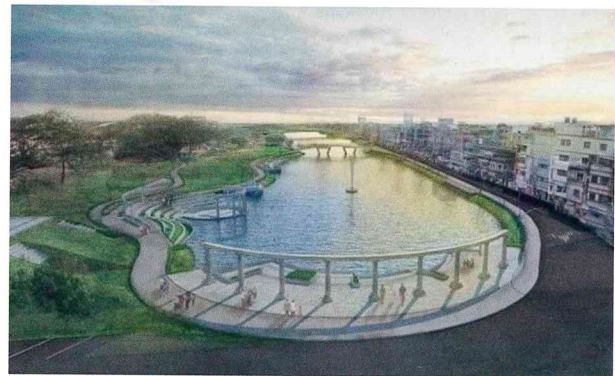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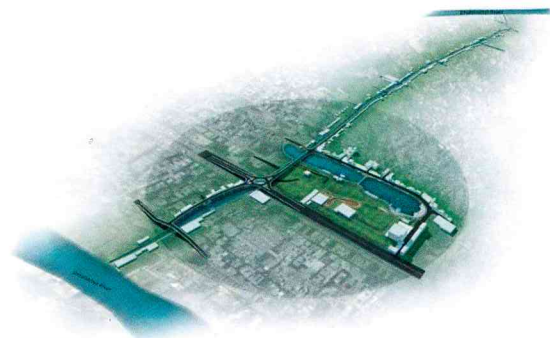


Baburail Canal Restoration

Narayanganj City, 20km south of central Dhaka, is one of the oldest port towns in Bangladesh. Years of unlawful damaging of banks and dumping of garbage have narrowed the city's lake and canal thereby obstructing water transport, and given rise to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The City started the Baburail Canal Restoration project, which incorporates the Jimkhana Lake Restoration project, in 2011. After securing a budget of 1.2 million dollars, it was offered 25 million dollars by the World Bank for restoration of the lake, and that work is now 30% complete.

The Baburail Canal, which connects the Dhaleshwari and Sitalakhya Rivers that flow by the city, is to be restored to make it a principal waterway for traffic. Related to this is the handling of slum areas along the canal, which is a serious issue, and in order to progress the project it was necessary for 85 households to be removed from once such area. However, rather than carrying out forced evictions, the city is building new homes alongside existing ones, and has pledged to build homes for low-income families by 2030.



纳拉扬甘杰市自 2011 年开始的运河整治项目，由“JIMKHANA 湖的整治项目”和“BABURAIL 运河整治项目”构成。为确保该整治项目顺利实施，政府提供了 120 万美元的预算，同时由世界银行提供约 2,500 万美元的经费支持，目前该项目已经完成了 30% 的整治工作。

另外，BABURAIL 运河的整治工作，是对位于城市两侧、连接沿着该市的 DHALESHWAR 河和 SHITALAKHYA 河进行整治，力图恢复以往的水上交通干线。

这项运河整治项目，面临的难题是如何治理运河沿岸的贫民街区。为了保障该项目顺利推进，有约 85 户人家需要进行搬迁。市政府承诺，在不强制搬迁的前提下，将在 2030 年前，完成新有住宅在原地址的建设。

ঢাকা中心部から南に20kmほどに位置するナラヤンカンジ市は、2つの川に挟まれた、バングラデシュでも最古の港町の一つである。水上交通が発達した土地だったが、長年の違法な侵食や川の堆積作用、ゴミの投棄等により、湖や運河は狭小化するとともに水の流れを失い、水上交通に支障をきたしただけでなく、深刻な環境問題を引き起こしていた。

そこで、ナラヤンカンジ市が2011年から着手した運河再生事業は、「ジンクハナ湖の再生事業」と「バブレイル運河再生事業」で構成されている。同市は、湖の再生事業に120万ドルの予算を確保し、世界銀行から約2,500万ドルが提供されることになっており、現時点でこの事業の30%が完成している。

一方のバブレイル運河再生事業は、同市の両脇を流れるダルシュワリ川とシタラクシャ川をつなぐ運河を再生し、かつてのように水上交通の幹線にする事業である。



この運河再生事業では、運河沿いに立ち並ぶスラム街をどのように扱うかが深刻な課題であり、事業推進のためには約85世帯の退去が必要だったが、強制退去は実施せず、新たに整備する住宅と並存させながら、2030年までに、低所得者向け住宅を建設することを市は公約している。



다카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20km 정도에 위치하는 【나라얀간지】시는 2개의 강 사이에 있는 방글라데시에서도 최고의 항구 도시 중 하나다. 수상교통이 발달한 곳이었지만, 장기간의 불법 매립이나 강의 퇴적 작용, 쓰레기의 투기 등에 의해 호수나 운하는 협소화함과 동시에 물의 흐름을 잃고, 수상교통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

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본시가 2011년부터 착수한 운하재생 사업은 「【진쿠하나】호수의 재생 사업」과 「【바부레이루】운하재생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호수의 재생 사업에 120만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고, 세계 은행에서 약 2,500만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이 사업의 30%가 완성되어 있다.

한편, 【바부레이루】운하재생 사업은 시의 양쪽으로 흐르는 【다루슈와리】강과 【시타라쿠샤】강을 잇는 운하를 재생하고, 예전과 같이 수상교통의 간선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운하재생 사업에서는 운하를 따라 줄지어져 있는 슬럼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심각한 과제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약 85가구의 이주가 필요했지만 강제 이주는 피하고, 새롭게 정비하는 주택과 병존시키며, 2030년까지 저소득자 대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본시는 공약하고 있다.